

하나님이 높이는 인생

성경 열왕기하 11:13-21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하루 되세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용하시길 기대하나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주신 은사로 세상을 섬기도록 해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내가 주인 삼은 (은혜의 찬양 262장)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2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

- 1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 2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 3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후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말씀 읽기 열왕기하 11:13-21

- 13 아달라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와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 14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라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 15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와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 16 이에 그의 길을 열어 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 17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와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 18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와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 19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와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 20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 21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칠 세였더라

본문 배경

아합 왕의 딸이자 아하시야의 어머니인 아달라가 남유다의 정권을 잡습니다. 그녀는 정권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손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여왕이 되어 6년간 통치합니다. 여호람의 딸이자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왕자를 빼돌려 6년 동안 몰래 양육합니다. 아달라가 정권을 장악한 지 7년째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목숨을 걸고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다윗 왕조가 이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는 은밀히 군대 장교들을 불러 일을 진행합니다. 안식일에 성전에서 여호야다가 왕자 요아스를 데리고 나와서 왕의 대관식을 진행합니다. 요아스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여호와와 율법책을 주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성전에 있던 백성은 기뻐하고 환호하며 새 왕을 맞이합니다. 이 사태를 파악한 아달라는 급히 성전으로 달려와 반역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군사들에게 그녀를 끌고 나가라고 합니다. 아달라는 결국 그녀의 어머니 이세벨과 비슷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달라가 죽은 뒤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백성과 왕 사이에도 언약을 맺도록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언약 갱신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몰려가 신전을 허물고 신상을 완전히 부수었습니다. 또한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입니다.

말씀 관찰

1 요아스는 몇 살에 왕이 되었나요? (21절)

답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해설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하에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요아스가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 위에 섰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앞의 두 기둥 곁에 선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대하 23:13).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기둥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며 다윗 왕조에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반영된 것입니다. 아달라는 스스로 남유다의 왕이 되기 몸부림쳤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7세였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사람은 비록 어린아이여도 높아집니다.

2 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을 위해 단행한 일은 무엇인가요? (17-18절)

답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과 제단을 철저히 깨뜨립니다.

해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합니다. 남유다 백성은 아하시야의 통치 아래서 바알을 섬겨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맺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 적용

1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 자리, 은사, 달란트는 무엇인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말씀 암송

11-3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편 80편 3절

작곡 송세라

♩ = 120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팔십편 삼절 말씀 아멘



가정에배 기도문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만함에 빠져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힘이 있다면,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